

■ <요약> 지식 경제에 관한 오해와 ‘지식 한국’ 건설의 길

- 지식 산업, 지식 기업, 구조조정에 관한 오해
 - 첨단 산업만이 지식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
 - 최신 설비만 갖추면 곧 지식 기업이 된다고 여기는 것
 - 구조조정의 목표를 부채 축소에만 맞추는 것

- ‘지식 한국’ 건설을 위한 6대 우선 과제
 - 지적 자산의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평가보고서 작성을 의무화
 - 고시 및 공채 제도를 폐지하고 기능별, 직급별로 전문 인력을 수시로 채용
 - 교육부와 노동부를 통합 ‘학습고용부’를 신설하고 산학 연계 프로그램 강화
 - 관련 산업, 정부기관, 대학 등이 연결된 세계적 수준의 산업집합체를 육성
 - 인터넷 인프라 구축과 조기 영어 교육의 의무화
 - 감사 제도를 비리 적발 위주에서 컨설팅 및 대안 제시 위주로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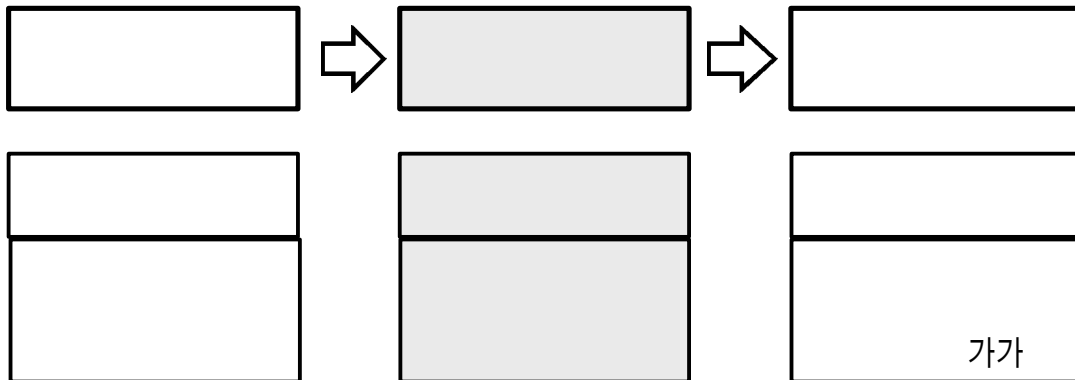
지식 경제 현안 **지식 경제에 관한 오해와 ‘지식 한국’ 건설의 길**

본 연구원에서는 1998년 12월 23일 매일경제신문사 지식경영아카데미의 강영철 경제부장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가진 바 있음. 이하는 이 강연회에서 발표된 내용 중 핵심 부분을 요약 정리한 것임

□ 한국은 지금

- (당면 과제) 한국은 지금 투자 주도 경제의 한계에 직면해 있음
 - 한국은 규모의 경제에서 비롯되는 저비용에 경쟁의 기초를 두는 전형적인 생산 요소 및 투자 주도 경제의 성장 과정을 겪어 옴
 - 하지만 투자 주도형 성장은 과잉 투자를 유발하고 과잉 차입을 불러와 한국경제를 IMF 위기에 빠뜨리는 근본 원인이 되었음
 - 한국은 이제 투자 주도 경제에서 탈피해 지식 활용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지식 주도 경제로 전환되어야 함

< 변화하는 한국경제 >



□ 지식경제에 대한 세 가지 오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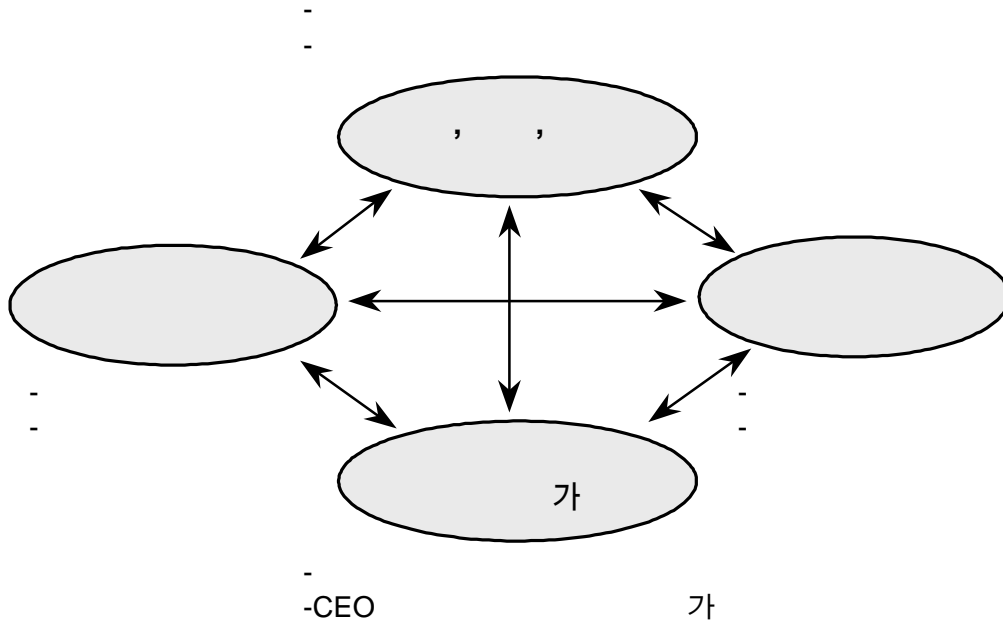
- (지식산업에 대한 오해) 섬유를 버리고 정보통신으로 가야 한다는 것
 - 첨단산업만이 지식산업인 것이 아니라 지식의 활용을 높이면 모든 산업이 지식 산업이 될 수 있음

- 예컨대 의류산업에서 세계 일류 기업인 이탈리아의 ‘베네통’은 첨단 기술 산업에 속하는 한국의 PCS 3사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음
- (지식기업에 대한 오해) 최신 설비만 갖추면 지식기업이 된다는 것
 - 한보의 예에서 보듯이 최신 설비를 갖추어도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멸의 길에 빠짐
 - 반면 미국의 뉴코스틸社は 중급 수준의 제철 공법만을 가지고도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음
 - 한국기업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지식임. 즉 물건을 잘 만들어 내는 기술은 있지만 ‘잘 팔릴 수 있는 물건’을 만들어내는 지식은 부족함
- (구조조정에 대한 오해) 구조조정의 목표는 부채 축소라고 생각하는 것
 - 당장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핵심 사업을 적정가 이하로 매각하거나, 인건비 축소에 급급해 개인의 지식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직원수 줄이는 데만 주력한다면 한국 기업들의 지식기반은 결국 붕괴될 것임
 - 현재 기업과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이 지식 파괴형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

□ 「지식 한국」 건설의 4대 요소와 6대 과제

- (4대 요소) 지식 주도 경제의 핵심 요소는 다음의 4가지임
 - 정부와 기업, 즉 조직차원의 지식 경영: 지식을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시장과 소비자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‘지식 경영’을 해야 함
 - 개인의 지식 역량: 업무의 전문성과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‘지식 근로자’가 되어야 함
 - 지식의 원활한 흐름: 세계로부터 지식을 흡수하고 새로운 지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‘네트워크’와 ‘기반시설’을 갖추어야 함
 - 인센티브와 업적 평가: 연공에 따라 서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보유한 지식에 따라 서열을 결정하는 ‘지식 서열 사회’가 되어야 함

< 지식 주도 경제의 요소들 >



- (6대 과제) 한국 경제가 지식 주도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실천 과제 중 파급효과가 크고 가장 시급한 6대 우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
 - 지식 중심의 구조조정 실시: 개인·조직·국가의 지적자산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적자산 평가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
 -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: 고시 및 집단 공채 제도를 폐지하고 기능별, 직급별로 전문 인력을 수시로 채용
 - 교육과 산업의 연계성 강화: 교육부와 노동부를 통합, '학습고용부'를 신설하고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
 -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대표산업의 고부가가치화: 관련 및 지원산업을 비롯하여 정부, 협회, 대학, 연구소 등이 함께 지식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세계적 수준의 산업집합체, 즉 산업클러스터(cluster)를 육성
 - 선진 지식의 적극 흡수: 外資유치만이 아니라 外知유치도 적극화하기 위해 인터넷 인프라의 구축과 조기 영어교육의 의무화 실시
 - 변화 거부 공직풍토 추방: 감사 제도를 비리 적발 위주에서 컨설팅 및 대안제시 위주로 전환하여 공직자의 창의력 발휘를 유도

■ 정리: 김창욱 연구위원 cwkim@hri.co.kr ☎724-4044